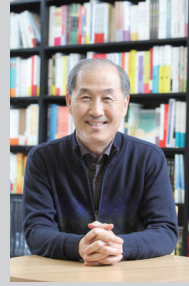


# 동성애와 신학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동성애



●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 I. 동성애 정당화의 철학적 배경

19세기 말에 태동한 마르크스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사회”를 꿈꾸었다. 그러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철저한 이타주의자라야 하는데, 현실의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였다. 인간은 능력만큼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고자 한다. 능력만큼 일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

록 하기 위해서는 전무후무한 국가의 독재적 강제력이 불가피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록 강제하자 사람들은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려 하지 않았다.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동원해도 능력과 창의력을 끌어낼 수는 없었다. 마침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한 공산주의 경제는 20세기 말 붕괴되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실패한 마르크스주의는 프로이드의 성 심

리학의 영향을 받아 성적 충동에 주목하면서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수립을 새로운 사회 변혁의 목표로 설정했다(신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는 성정체성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바탕 위에서(sex) 이성애를 보편적 규범으로 따르는 기존의 사회를 해체하고 성정체성을 인간의 주관적 성향에 의하여 자유롭게 규정하면서(gender)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성 관습으로 규정하는 평등 사회를 수립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수립하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면, 신마르크스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으로(gender) 평등한 사회 곧,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수립하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

## II. 동성애 관련 본문들에 대한 친동성애적 재해석과 퀴어 신학(Queer Theology)

기독교 진영 안에서 성에 대한 현대 사상계의 변화된 인식에 재빠르게 반응하고 또한 수용한 진영은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였다. 자유주의신학은 이성애의 규범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새로운 사조에 부응하여 성경해석과 신학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신학자들은 두 가지 작업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동성애와 상관이 없는 본문이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친동성애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퀴어 신학, Queer Theology).

### a. 동성애 관련 성경본문들에 대한 재해석

**1. 소돔과 고모라 사건** ▶ 동성애 친화적인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16:49-50이 지적인 두 가지 죄들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은 죄”와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동격으로 해석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한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두 죄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접속사 “왜”는 병렬 접속사로서 동격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병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곧, 소돔과 고모라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은 죄와 거만하고 가증한 죄(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유다서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멸망했음을 분명히 한다.

**2. 레위기18장의 동성애 금지규정** ▶ 동성애 친화적 신학자들은 레위기18장의 동성애 금지규정이 신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의식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레위기18장의 성관련 규정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도덕법으로 보아야 한다.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의식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며칠 간의 격리조치 정도로 처벌이 끝났지만 보편적인 도덕법을 범하는 경우네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레위기18장의 성관련규정들을 범하는 경우에는 사형을 비롯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동성애금지규정은 보편적인 도덕법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3.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 동성애 친화적 신학자들은 사무엘상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동성애를 나눈 것으로 곡해하고 있지만 이 관계는 아가페 사랑

에 근거한 친밀한 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실한 해석이다.

**4. 로마서 1장 26절** ▶ 동성애 친화적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순리”와 “역리”를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들의 하나로 인정해 주는 본문이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순리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가리키고 역리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5. 고린도전서 6장 9절** ▶ 동성애친화적 신학자들은 “탐색하는 자”(말라코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연약성을 가리키고, “남색 하는 자”(아르젠코이타이)는 남성 창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일반적인 동성애자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탐색하는 자”는 남성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본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b. 퀴어 신학**

**1. 정의**

퀴어(queer)는 “낯설고 이상한”이라는 뜻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인 성육신,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 세례, 성찬 등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라는 점과 동성애가 이성애자들의 눈에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가 정통신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하

고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신학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통신학이 신학적 주제들이 “낯설고 이상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이 주제들이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뜻인 반면에,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볼 때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통상적인 상식적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퀴어 신학은 성이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것으로 “낯설고 이상하게” 해석한다. 퀴어 신학은 인간은 원래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용동체로서 존재했었고, 자용동체적 존재가 시초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존재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플라톤의 향연, 탄드라교),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과 기독교의 인간관과 배치된다.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은 창조된 첫 순간부터 서로 완전히 독립된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했다(창1:27).

**2. 성육신**

퀴어신학자들은 마리아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의 몸은 마리아로부터만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외형은 남성이지만 내용은 여성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된 자용동체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육신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은 마리아가 비록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하여 남성과 성관계

를 가질 때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남자 아이의 잉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자웅동체적 존재가 아니라 남자 아이 곧, 아들임을 단호하게 선언한다(사7:14).

**3. 십자가 상의 죽음**

퀴어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요19:34), 이 상처는 곧, 여성의 자궁이고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여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이며 젖이라고 해석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웅동체로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여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상처는 그냥 몸에 난 상처일 뿐이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그냥 피와 물일 뿐,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진 신체 부위로 변환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창에 찔린 상처와 흘러신 피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4. 부활**

퀴어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통하여 “다성적인 몸”(multi-gendered body) 곧,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바뀔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부활한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질병과 죄에 무너지지 않는 새 몸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전에 지녔던 외형적인 남성성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이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들이 역사의 종말 때 보편적인 인류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인류의 몸에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5. 세례와 성찬**

퀴어신학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인간 문화가 부여한 모든 정체성들이 “종말론적인 지위버림”(eschatological era-sure)를 당한다고 주장한다.

종말론적인 지위버림의 뜻은 이성애, 동성애, 남성성, 여성성의 구별이 철폐된다는 뜻이다. 또한 퀴어신학자들은 성찬 시에 예수님의 몸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형태의 빵으로 변형되고 확장된다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찬 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성찬 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신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불안정성, 유동성, 전환 가능성을 가진 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세례와 성찬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속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죽었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만(엡2:1), 이 변화는 수세자의 몸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적으로 강하게 체험하지만 역시 몸의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III.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향인가?**

20세기 후반에 Nature나 Science 등과 같은 저명한 국제과학학술잡지에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향으로서 정상적인 성적 관습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이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곧 거의 대부분 철저히 논박되고 뒤집어졌다.

a. 동성애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킨제이가 실시한 연구보고가 잘못 인용되어 성인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는 혁명적인 수치가 회자되었으나 이 수치는 킨제이의 연구보고 가운데 “백인 남성의 10%가 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자다”라는 항목을 왜곡한 수치였으며, 킨제이의 연구보고자체가 특수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서 인류 전체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연구였다. 후에 전국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된 조사는 인류의 1% 내외가 동성애자라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b.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인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능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들로는 호르몬이 동성애를 결정한다는 주장, 뇌의 구조가 동성애를 결정한다는 주장, 유전자가 동성애를 결정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1. 호르몬 가설** ▶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성애자보다 높고,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성애자보다 높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나 호르몬의 수치의 정도가 성적체성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뇌의 구조** ▶ 동성애자의 뇌의 구조 가운데 이성애자의 시상하부의 SCN((suprachiasmatic nucleus)영역이 동성애자의 그것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으나 SCN은 성적체성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유전자 가설** ▶ 유전자가설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 이론이다.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한쪽이 동성애자이면 다른 쪽도 반드시 동성애자라야 하는데, 실험결과 10% 내외 정도의 일치율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입양 형제들 사이에서 보다도 일치율이 적게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Xq28의 문제인데, Xq28은 성적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전자임이 확인되었다.

c. 동성애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적 관행인가?

1973년에 동성애 운동가들이 미국정신의학협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사진을 위협하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회의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에서 빼자는 안건을 상정한 후에 투표에 부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APA 회원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병리 현상으로 간주했다. 투표가 이루어진 지 4년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신과의사들 중 69%가 동성애를 “병리적인 적응”으로 간주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의 대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여전히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신질환의 신호로 간주했다.

d. 동성애는 변화가 불가능한가?

챠들러 버(Chandler Burr)나 마이어스(David G. Myers)와 같은 동성애 친화적인 과학자들은 정신의학적으로 탈동성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으나 휴스턴 매킨토쉬(Houston MacIntosh), 로렌스 해터러(Lawrence Hatterer), 제라드 반 덴 아르데베그(Gerard van den Aardweg), 프리맨(William Freeman)과 메이어(Robert Meyer) 등의 임상치료 결과는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전환성공률이 평균 66%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과 성령의 능력을 치료의 과정에 포함 시킨다면 성공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 계층으로 범주화될 수 없다.

**셋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만나는 생물학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항문과 성 관련 질환을 유발하며, AIDS 전파의 온상이 되는 등 보건 의료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넷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지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규범적인 윤리적 통제로부터 유리시키는 행동이다.

IV.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인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첫째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결정 이전에 주어지는 창조질서임을 말한다.

**둘째로** 동성애자는 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될 수 없다. 동성애는 사회의 한계계층이 구비해야 할 선천적인 구조성을 갖추지 못

